주의 공현 대축일
제 1 독서 : 이사 60,1-6
제 2 독서 : 에페 3,2-3a.5-6
복 음 : 마태 2,1-12

숲정이

"동방박사들은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 2,11).

강 론

새해에는

김봉술 신부/영등동 천주교회

"세배 잘하고 잘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세배돈과 웃음이 있다."

새해 아침 작은 사제로서 소원한다. "예수님, 세배 받으소서. 새해엔 우리 사제들과 이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세배 잘하고 잘받는 진실의 도구되게 하소서. 그리고 날치기 통과 없이 세배돈과 웃음도 잘주고 잘받는 사람들이게 하소서." 세상엔 참으로 교회들도 사람들도 많지만, 자기의 위치에 제대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교회와 사람은 똑바로 서기를 외면할 때 세상에서 날치기 통과(?)를 감행한다. 우리가 세배하는 이유는 새롭게 자기를 똑바로 세우기 위한 희망의 나래이리라. 오늘은 함께 작은 정성을 담아보자.

왕은 성당을 세우고 싶어한다. 역사에 위대함을 남기고 싶어서이다. 성당은 백성들의 피와 땀(신축헌금?)으로 완성되고 공적비가 대리석으로 세워진다. 훗날 하루는 왕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왕은 칭찬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책망의 소리를 듣는다. "그대는 자신의 비석을 파내고 대신 가난뱅이 농부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작은 정성을 찾아서 비석을 세우도록 하시오." 그래서 왕은 농부를 찾아본다. "농부인 그대는 성당을 지을 때 무엇을 바쳤소?" 농부는 말한다. "저는 아무것도 바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성당을 지을 때 재목을 싣고 가던 말이 힘이 없어 보이기에 볏짚 한 단을 준 일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성당에서 청와대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세배하러 왔습니다. 마굿간에 누워계시는 예수님께 세배드리는 성당의 모습 속에, 백성들에게 새해인사 나누는 청와대 모습 속에서 작은 정성의 초라함이 소외되지 말아야 하겠다. 언제나 가난뱅이들이 대접받는 교회가 되려나? 언제나 날치기 통과 없는 새나라가 오려나? 우르과이 라운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농부들, 노동자들의 세상살이 힘들게 하나? 행복에 취해 있는 성당의 사제들과 청와대의 왕은 가난한 백성들의 세배돈과 웃음을 기쁜 마음으로 잘받고 잘쓰는 사랑하는 법을 늘 배워야 하리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제인 저는 오늘 말구유 세상을 향해 떠나는 동방박사를 희망한다.

소 리

가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황께서는 국제연합과 뜻을 같이 해서 올해를 '가정의 해'로 정하고, "가정은 인류 가족의 평화를 창조한다"는 제목의 세계 평화의 날(매년 1월1일) 담화를 발표하셨다. 교황께서는,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인데도 여러 형태의 폭력 때문에 '평화 결핍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신다. 그러나 가정은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불리움을 받았음으로,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은 '평화 건설에 봉사'해야 한다고 역설하신다.

산업화와 더불어 먹고 사는 문제는 놀라운 발전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일터를 찾아서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다. 농업사회에서 큰 자리를 차지했던 대가족제도는 무너지고 핵가족화 되면서 우리 삶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동체적인 모습보다는 개인적인 삶의 자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의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의 편안함과 이해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이다. 거개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 평화의 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에 위기가 닥친 것이다. 마침 이러한 때에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더 나은 세상의 건설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곧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다. 그러니 올해에는, 가정의 중요함을 성사(聖事)로까지 세운 교회의 정신을 살아야 하겠다.

甲

숲정이 산책

1994년은 가정의 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세계 평화의 날(1994년 1월1일) 담화문

가정은 인류 가족의 평화를 창조한다

1. 세계는 평화를 염원하고 있으며 또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분쟁, 점증하는 폭력과 사회불안 그리고 고질적인 빈곤상황이 계속하여 무죄한 희생자들을 낳고 개인간 민족간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평화는 때때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해서는 아니됩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원초적인 계획의 한 부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태초의 조화가 무너지긴 하였으나, 하느님의 원초적인 계획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인권선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위 단체"를 이루는 가정은 바로 사회의 기초입니다.

평화의 수호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정의 공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저는 국제 가정의 해에 맞이하는 이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가정과 평화의 밀접한 관계를 성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가정의 해가 참 평화의 추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 교회와 종교, 각종 단체와 각국 정부, 국제 기구들이 가정을 도와 평화의 일꾼으로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정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2. 가정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부부의 사랑을 통하여 이 과업을 성취할 것입니다. 부부는 자연적인 의미의 결혼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의 성사로 고양된 혼인으로써 완전하고 충만한 생명의 친교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자녀들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모들의 노력을 통하여 평화의 과업을 성취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자기 것으로 삼아 자신이 누리는 혜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가정환경에서, 평화의 가치에 대한 "가르침"은 물론 그 이상의 증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토대로 삼아 상호 이해와 인내와 겨려와 용서로 실천되는 가정적인 덕행들은 가정 공동체로 하여금 평화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평화를 위한 그 원초적인 소명에 반하여, 불행하게도 가정은 흔히 긴장과 억압의 현장이 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사회에 만연된 온갖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희생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빈번한 언쟁, 자녀 출산의 거부, 미성년자 유기와 학대 등은 이미 가정의 평화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서글픈 징후입니다. 이는 분명코 부부의 변거라는 슬픈 해결책으로 치유될 수 없으며, 더더군다나 참으로 현대 사회의 "유행병"인 이혼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나라가 유혈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곳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한 분쟁의 첫번째 희생자는 흔히 가정입니다. 가정은 생계수단이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집과 토지와 재산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피난을 가야하며, 어떤 경우에는 온갖 안전을 위협하는 극도의 재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민족간의 유혈 분쟁을 상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분쟁은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상황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4. 전쟁과 폭력은 가정구조를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분열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평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 양식을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강요함으로써 국민 정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행하게도 요즈음 무력 분쟁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년 소녀들 심지어는 조그만 어린이들까지 그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이 서글픈 사실을 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평화 발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심각한 장애를 언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어린이들이 아늑한 가정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흔히는 가정이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관심사들을 쫓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제멋대로 놀도록 방치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가정이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집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어린이들,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의지가지도 없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거리의 어린이들 가운데 얼마는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다른 어린이들은 마약의 이용이나 판매 그리고 매춘에 이끌려 들어가고, 마침내는 범죄 조직으로 떨어지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토록 만연되어 있는 수치스러운 상황을 어찌 모른체 할 수 있습니까!

평화로운 미래를 바라보려면, 모든 어린이가 착취와 배반이 아니라 따뜻한 보호와 끊임없는 애정을 체험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구조와 시책들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안정과 신뢰의 분위기를 보장해주는 가정의 공헌은 앞길이 창창한 어린이들이 밝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장차 성장하여 사회의 진정한 진보를 이루는 책임있는 역할을 할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우리온돌 전북총판
· 연료 50% 절약 24시간 따뜻
· 보일러용, 전기용(심야전기보일러)
· 원적외선 웰질용 건강침대
강우금(대건 안드레아)
주임순(바울라)
☎ 78-1363, 1431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대여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 ·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차향주 미용실
메이크업 전문
차 향 주(안젤라)
우체국 사거리 전주안과 2층
☎ 88-9405

축! 개업
키친아트 전주특약점
혼수, 주방용품, 도자기 공장도가 판매, 각종 선물 답례품 상담
변희철(요아킴) · 한미영(글라라)
효자동 신광불링장 앞
☎ 224-8489

5. 영구적으로 평화로운 질서는 평화의 가치들을 표명하고 견고케 하는 제도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 본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부응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 단체로서, 그 특유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법률은 가정의 복지 증진을 지향하여야 하며, 가정이 그 본연의 임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국가는 또한 모든 가정이 인간 존엄성에 맞갖는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난과 빈곤은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빈곤은 사회의 안정과 민족의 발전 그리고 평화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가진 게 없어 가정을 꾸리는 일을 미뤄야 하거나 아예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는가 하면 또 가난한 가정들은 사회생활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소외당하고 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6. 이제 저는 가정에,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에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은 본연의 것이 되어라!"고, 저는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에 적었습니다. 가정은 사랑을 주고 생명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으니, "부부생활과 부부애로 깊이 맺어진 공동체"가 되십시오!

여러분 부모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평화인으로 키우고 가르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평화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녀 여러분, 뜨거운 젊음으로 꿈과 희망에 찬 미래를 바라보며, 가정의 은혜를 소중히 새기고, 하느님께서 마땅한 길을 거쳐 여러분을 부르실 그 소명에 따라 가정을 이루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선을 향한 열망과 평화의 사상을 펼쳐 나가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다른 가족들과 더불어 세대 사이에 독특하고도 고귀한 연결을 맺어주고 계시는 여러분은 평화로운 현재에서 과거를 미래에 이어주도록 여러분의 경험과 증언을 통하여 적극적인 기여를 하십시오.

가정은 화합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며 충만한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떠한 가정도 없다고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도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이의 집이요 가정입니다. 교회는 그 문을 활짝 열고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입니다. 그 연령이나 곤경이 어떠하든 그들의 소원이나 희망이 무엇이든, 교회는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평화 속에서 살아가며, 평화가 가정에서부터 온 인류 가족에게로 흘러넘치게 하소서!

이는 국제 가정의 해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신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에페 3,15) 하느님께 드리는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 구 소 식

1. 이병호 주교님 신년하례식 : 1월3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타 3층 강당.
2. 초등부 복사단 연수 : 1월4일-5일(1차) 1월5일-6일(2차) 나바위 피정의 집.
3. 가톨릭 언론인·방송인 공소 방문 : 1월9일(일) 오전9시 순창 학선 공소.
4. 가톨릭 문우회 정기 총회 : 1월8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타 회의실.
5. 예비 신학생 모임 : 1월9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타.
6. 남성 제46차 꾸르실료 : 1월6일-9일 천호 피정의 집.
7. 성령쇄신 대 묵상회 : 1월11일-12일 오전9시 중앙 성당, 지도-이병호 주교님, 이범주, 유수일, 정태현, 이수현 신부님, 문의 (0652)87-2722.
8. 푸른군대 피정 : 1월6일(목) 오전10시 덕진 성당.
9. FAX 번호 안내 : 가톨릭 전주교구 홍보국 (0652)83-9365.

● 성소모임 사랑의 씨튼수녀회 : 1월9일 오후1시30분 금암동 성당 교육관(0652)212-3233.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 1월9일 오후2시 창인동 성당 수녀원(0653)842-4132.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1월9일 오후2시 서학동 성당 수녀원(0652)84-2276.

요십이 (1062) 김병오

사무장 구함

· 구비서류 : 본당신부님 추천서
세례증명서, 이력서
(학력,자격증포함)
· 연락처 : 군산시 경장동 463-9
☎(0654) 446-9197
천주교 팔마교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 신구약성서 입문(2년)

1.구비서류 : 입학원서,최종학교 졸업증명서,증명사진 2매 2.원서교부 및 접수 : 93년11월-94년1월20일 3.원서대 : 3,000원 4.교부처 : 전국 성바오로 서원 및 본교육부 5.문의 : (02)987-4004,(0652)252-3398

우편통신에 의한 신학공부(2년제)

· 대상 : 전신자(연령 제한 없음)
· 과목 : 성서, 신학 전반, 영성
· 접수기간 : 94.1.4-1.26
· 원서청구시 소액환 3,700원 동봉
· ☎745/8339서울 종로구 혜화동 90-12
가톨릭교리신학원 신학통신교육부

전북 싸바 총판(탕)

신경통,류마치스,관절염,산후풍
각종 성인병 특효(헝가리산)
이 미 순(안나)
인후동 성당 뒤(원일탕 내)
☎ 253-2440

운 장 회 관

피로연 600석 완비
한 광 석(야고보)
전 민 자(율리아)
중앙 성당←→한양,목원예식장
☎ 254-7533

'94 유치원생 모집
호남웅변미술종합학원

유 병 철(베드로)
박 경 애(안젤라)
호 남(제일예식장뒤) 252-7313
새호남(전주역앞) 253-1411
효 자(삼천쌍용APT앞) 221-8331

이전! 개원
산 농 서 실

고 영 선(마 태 오)
송 춘 섭(로시리아)
효자우전 성당·삼호APT 앞
☎ 225-5580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 진 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주의 공현 대축일
◉ 94년 새해에는 더욱 더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1. 자비의 모후 꾸리아 부단장 : 서정님(데레사)
2. 성시간 : 6일 저녁미사 후. 3. 병자 봉성체 : 7일 사무실에 신청.
4. 사목회 상임 : 7일 저녁미사 후.
5. 복사단 연수 : 4~5일 나바위.
6. 모임 : ①울뜨레아(오늘 장엄미사 후) ②성심회. 자모회(4일 어머니미사 후) ③반회장(7일 전 10시30분) ④꾸리아(9일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7. 금주 청소 : 중노14. 15반. 차주 청소 : 중노16. 17반.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 길 평

1. 오늘은 주의 공현 대축일(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성체강복 : 6일 저녁미사 후.
3. 교무금 신립 안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립하시기 바랍니다.
4. 회합 : ①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②구역분과회(4일 오전 10시) ③자모회(6일 오전 10시) ④여성분과회(8일 오전 10시) ⑤요셉회(9일 공식미사 후) ⑥꾸리아(9일 오후 2시) ⑦청년회(9일 저녁미사 후) ⑧대건회(9일 공식미사 후) ⑨해설자 모임(9일 공식미사 후)
   축! 결혼 : 9일12시 신랑 김현태(요셉) 군 신부 유광원(아네스) 양
   금주 차례 : 해설-오교성. 독서-황길평 부부
   봉헌-김홍현 가족
   차주 전례 : 해설-황만금. 독서-나경섭 부부
   봉헌-박남수 가족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섭
수녀원 86-6653 사목회장 양 주 태

◉ 오늘은 주의 공현 대축일 : 우리의 삶을 봉헌합시다.
◉ 새해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사목회-
◉ '94년은 가정의 해 : 가정의 성화를 위해 노력합시다.
1. 모임 : ①꾸리아.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안나회-다음 주일.
2.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 후원회비 납부의 날(매월 첫주) '94년도 교무금 신입하세요.
3. 남성 46차 꾸르실료 수강 : 이명수(사도요한). 최원규(말딩)
4. 복사단 피정 : 5일~6일. 나바위 교육관.
5. 차주 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정광섭 ②오귀남
   봉헌-최경림 씨 부부
6. 감사 : 성탄 제대꽃-김종식(10만) 오철규. 김성수(5만) 최상옥(3만)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종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 병 부

◉ 주의 공현 대축일!
1. 꾸리아 : 1월2일(오늘) 오후 2시.
2. 사목회 : 1월4일(화) 저녁 8시30분.
3. 사목회 : 1월5일(수) 오전 10시30분.
4. 성심회 : 1월11일(화) 오전 10시30분.
5. 울뜨레아 : 1월12일(수) 저녁 8시.
6. 초등부 복사단 연수 : 1월5일(수)~1월6일(목) 나바위 피정의 집.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주의 공현 대축일.
1. 오늘 공식미사 후 : 꾸리아.
2. 복사단 피정 : 1월5~6일 나바위(1시30분 집결)
3. 사목회. 각 단체장. 구역. 반장 피정 : 1월8~9일(수.목)
4. 울뜨레아 :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청소 봉사 : 4구역1반. 2반.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 명 행

◉ 주의 공현 대축일입니다.
1. 금주 : ①공식미사 주교님 집전-공식미사 후 주교님과 사목회 신년 하례식(사랑방) ②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③재속금라라 형제회(후 1 : 30) ④요셉회(후 6시)
2. 삐에따회 : 5일(수) 오전 11시.
3. 초등부 복사단 교육 : 5일~6일 나바위 교육관.
4. 성체강복 및 조배 : 6일(목) 오전 10시.
5. 성모 성심회 : 6일 오후 3시.
6. 병자 봉성체 : 7일.
7. 차주 :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Cu(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상 근

◉ 오늘은 주의 공현 대축일. 새해에는 신자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정 기도의 해"
1. 신년 하례식 : 3일 전 10시30분 센타 회장단 함께.
2. 성시간 성체강복 : 6일 후 7시30분 축복의 새해를 위하여.
3. 꾸르실료 남성 46차 강습회 : 6~9일 김현균. 이장희.
4. 복사단 연수회 : 5일~6일 나바위 대건 교육관.
5. 유아세례 : 8일 후 2시30분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람.
6. 회의 : 부녀회-5일 어머니미사. 청년성가대-다음 주일. 꾸리아-오늘 후 2시30분.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7. 반미사 : 5일 14-7 후 3시. 6일 14-6 전 11시. 14-5 후 3시. 7일 13-1 전 11시. 13-2 후 3시. 14-4 저녁 8시.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사목회장 한 병 갑

◉ 새해를 맞이하는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1. 꾸리아 : 오늘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 오늘 오후 8시30분.
3. 성모회 결산 총회 : 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
4. 복사단 피정 : 5~6일(나바위)
5. 가정방문 : 5일(후 2시)-남양서원. 7일(후 2시)-거성근영
6. 매일 평일미사 전 성모 소일과에 참여를 바랍니다.
   금주 청소 : 삼정. 차주 청소-화산1
   금주 전례 : 장병순. 정준성. 독서 · 봉헌-최숙자. 김기성
   차주 전례 : 이완자. 강희연. 독서 · 봉헌-전헌정. 김의석

* 효자동
본당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신부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 동 섭

◉ 오늘은 주의 공현 대축일
1. 안나 요셉회 : 공식미사 후(교육관)
2. 환자 봉성체 : 4일(화) 오후 2시부터.
3. 구역 봉사자 모임 : 5일(수) 오전 10시30분.
4. 사목회 : 7일(금) 오후 8시.
5. 울뜨레아 : 9일(일) 저녁미사 후(교육관)
   * 판공 성사 못보신 분은 매미사 전후에 보십시오.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21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 새해 본당 신자들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은총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모임 안내 : ①꾸리아-공식미사 후
   ②여성분과회-7일(금) 10시 미사 후
2. 성체강복 : 6일(목) 10시 미사 후.
3. 봉성체 : 6일(목) 오후 2시 사무실에 신청바람.
   차주 모임 : 울뜨레아. 기우회. 신축헌금 봉헌액-450.000원
   금주 전례 : 해설-이종표. 독서①이삼춘 ②이종숙
   봉헌 안내-박용규 부부
   차주 전례 : 해설-권정희 독서①김종림 ②박해숙
   봉헌 안내-김인수 부부